

함께 드리는 대림절 기도문 4

- 역경을 직시하면서 -

2020년 1월 10일

역경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보다 쉬운 길은 ‘역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길은 역경을 의식적으로 직시하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무시함으로써 극복하는 것-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은 하나의 자기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과 복종』, “84. 에버하르트 베헤에게” 中)

어릴 적 시골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꿈적거리며 미꾸라지였습니다. 미꾸라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름 내내 열개 그물로 마을 앞 냇가에 있는 미꾸라지를 잡아냈는데, 어린 마음에 미꾸라지 씨가 마를까봐 하늘에서 다시 떨어뜨려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살아 있는 미꾸라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그런데 그 미꾸라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신비였습니다. 미꾸라지를 비롯한 대다수 물고기들은 살아 있을 때에는 물결을 거슬러 오릅니다. 약한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만, 강한 물고기는 물살이 거세면 거셀수록 거슬러 오릅니다. 그게 생명의 본능이지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미꾸라지는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온 것입니다. 시내를 거슬러 도랑에 이르렀고, 도랑을 지나 소나기 때문에 마당에 패인 물길을 거슬러 오르다가, 추녀를 따라 세차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치고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마당으로 튕겨져 나온 것이지요. 물결이 거셀수록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치고 오르는 물고기, 그 생명의 본능!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거슬러 오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운동은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오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인류 역사 연구를 통해 도전이 클수록 그 도전에 응전해나간 창조적인 사람들, 비록 적지만 그 소수의 창조자들에 의해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류의 거센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동안, 그것을 거부하고 거슬러 오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지요. 그리스도인은 물고기처럼 역경을 거슬러 오르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고 거슬러 오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히10:38)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¹⁾

1) 책 : 본회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 (대림절묵상집) / 출판사 : 대한기독교서회 / 출간일 : 2017.11.5. / 18~19쪽